

전화의 불비속에서

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길을 달리시던 위대한 수령 **김일성** 동지께서 어느한 군을 지나실 때였다.

한동안 산들에 빼곡이 들어찬 나무들을 바라보시면서 여기에 나무들이 짝 들어찼는데 아주 좋다고, 산림자원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라고 못내 만족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곳 인민들이 전쟁의 어려운 속에서도 산림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.

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자신께서는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가시면서도 우리 인민들의 자그마한 소행을 높이 평가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.

잠시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의 풀 한포기, 나무 한그루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애국주의라고 하시면서 전에는 이 고장을 사람 못살 산간벽촌이라고 하였지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 무진장한 산림자원을 잘 리용하면 이곳 인민들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고 확신에 넘쳐 교시하시였다.

불비쏟아지는 전화의 나날에 산에 있는 나무를 보시면서도 더 아름다워질 조국의 모습과 인민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시며 그리도 기뻐하신 우리 수령님은 진정 절세의 애국자,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시였다.